

예수는 누구인가 (1)

신학박사 조 덕운

성경 말씀: 요한복음 1: 1-14

1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2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4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5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6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더라. 7 바로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이것은 그 빛에 대해 증언하여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해 믿게 하려 함이라. 8 그는 그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해 증언하도록 보내어진 자더라. 9 그 빛은 참 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10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되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11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시매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12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13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 예수는 말씀 (로고스)

사도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는 그가 예수님과 함께 했던 3 년반의 기간 후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후 반세기가 지난 후에 쓰여 졌습니다. 마가가 기록한 복음서와 꽤를 같이 하는 마태 복음과 누가복음과는 달리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의 첫장의 첫 구절에서 그는 예수님이 바로 태초에 계셨던 ‘로고스’ (그리스어로 말씀) 이심을 얘기합니다.

기원전 6 세기의 희랍 철학자 헤라클리투스는 로고스를 “질서와 지식의 원칙”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아리스토텔레스는 로고스를 “이성적인 대화”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창세기 1 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요한은 2 절에서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라고 창조의 주체가 바로 성자 하나님이셨음을 이야기 합니다. 창세기 1 장에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God said]”라는 표현이 아홉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반세기 전에 자신이 선생님이로 존경하며, 사랑하며, 따르면서 함께 3 년여 생활 했던 그 예수님이 바로 온 우주의 창조주이심을 확신하게 된 것은 언제이었던지 궁금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계시를 복음서에 기록하여 모든 사람들이 읽고 그가 받았던 동일한 계시를 갖게 되기를 소망하는 간절함을 이 구절들에 포함시켰습니다. 나의 신앙 여정에서도 처음부터 이 확신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계셨던 성자 하나님 바로 그분이심을 믿게 되고 그 앞에 엎드려져 바로 그런 하나님되신 예수님을 알게된 감격에 한없이 울음을 터뜨렸던 감격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이러한 계시가 있어야 예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러한 계시적 지식의 바탕위에 깊고 참된 신앙이 수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예수는 빛

창세기 1 장을 공부하면서 나에게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넷째 날에 만드셨는데 [창 1: 14-18], 그러면 첫째날에 창조하신 빛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의문이었습니다. 아마도 사도 요한 역시 동일한 의문을 가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요한은 이 의문의 해답을 금방 찾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기 전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요한 8:12]”라고 선언하신 것을 잘 기억하고 복음서에 이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알았습니다. 바로 자신의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셨고, 그 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온 우주를 비치는 빛이 나온 것을 이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태양은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를 비추는 빛을 주지만 광활한 온 우주의 빛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참 빛이며, 하늘의 모든 별들이 이 참 빛의 존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빛의 근원이시며, 그 빛이 또한 작은 천체인 지구에 사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혼에 비출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감격을 갖게 되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두운 곳이 많은 이유는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임을 우리는 모두 압니다. 인공위성에서 바라본 한반도의 밤 모습을 모두 아시지요. 남한은 매우 밝게 빛나는데 북한은 칠흑처럼 검게 보이는 이유는 북한에 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인 조명을 떠나서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볼 때에 우리는 세상이 매우 어두운 현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참 빛이 세상에 밝게 비쳐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5:14-16]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15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리하여야 그것이 집 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느니라. 16*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이 어두운 것을 한탄하거나 비판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빛이 얼마나 빛나고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생활에 어두움을 허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빛을 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나는 어떤 격려를 주고 있는지, 우리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이 되도록 어떤 모범이 되고 있는지 자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참 빛이 되신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고 요한은 말합니다. 그런데 어둠이 빛을 받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5 절]. 빛이 없는 어두운 방에 전등을 키면 방이 밝게 됩니다. 그러나 방 안의 모든 곳이 환하게 밝게 되지는 않습니다. 가구의 밑이나 뒷면은 아직도 어두운 곳이 있습니다. 빛이 투과하지 못하도록 가리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밤에 나쁜 짓을 하는 범죄자들은 보통 보안등이 없는 어두운 곳을 택하여 이동하며 범죄 행위를 합니다. 얼마전 오바마가 대통령이었을 때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내가 펜타곤 내에서 성경 공부를 지도하는데 여러 제약이 있었고, 사람들이 성경 배우러 올 때에도 주위 사람들의 눈치를 보아야 했습니다. 어두움이 많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훨씬 더 많은 영적 어두움을 경험하셨고, 결국 그런 암흑의 세력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주님께서 자기의 백성에게 구세주로 오셨는데도 그 백성이 왕이신 그분을 거부하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성경 얘기를 하거나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당장 거부감을 드러내고, 때로는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중국에서는 중국공산당과 정부가 크리스찬들을 많이 핍박하고 교회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회교도 국가에서는 기독교로 개종하면 죽임을 당합니다. 내가 아프카니스탄에 근무할 때에 통역관이 나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나를 개종하려고 시도한다면 내가 당신을 죽여야 할 것입니다”라고 해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극단 이슬람 국가들에 드러진 흑암은 언제나 없어질 것인지요. 그런 곳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의 용기에 감탄하며, 그런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온 세상의 참 빛이십니다. 어떤 철학도, 종교도 사람들을 영적, 물리적, 정신적 암흑에서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바로 그 때부터 여러분의 마음과 인생 안에 온 우주의 참된 빛이신 예수님의 빛이 들어와 기적적인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그 공간에 변화를 가져오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3. 예수는 생명

요한은 또한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4 절]”라고 가르칩니다.

창세기 1 장의 창조 이야기는 우리에게 생명이 어떻게 왔는지 가르쳐 줍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에서 생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들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의 인생에 빛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주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설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 역동할 때에 우리 안에 참 빛이 있게 된다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거주하는 집에 전기 장치와 회선이 모두 설치되어 있어도 전력회사에서 제공하는 전력선과 연결된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집에 빛과 동력이 들어올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빛과 생명의 원천입니다. 이 원천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짧은 삶이 종료되면 죽음을 마치고 다만 썩어져서 없어집니다. 그러나 참 생명이신 예수님과 연결되면 우리의 몸은 죽지만 혼은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 되려면 바로 이 생명되신 예수님을 우리 인생 안에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사람들의 빛, 온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에 생명력이 쇠퇴하고, 각종 동물들이 죽어가며 신음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에게 참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 세계에 진리가 활개를 치고, 참 생명력이 넘치게 되면 식물들과 동물들도 번창하고 기쁘게 살아갈 것이며, 이 지구의 생명력이 신장될 것입니다. 지구를 살리는 지름길은 어떤 환경 보존 프로그램에 있는 것보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생명력의 지배하에 기쁨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데에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삶의 희망을 잃고 자살의 길로서 생을 마감합니다. 한국에서 특히 젊은이들의 자살율이 OECD 국가들 중 최상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생명되신 그분으로부터 생명력을 얻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가요? 여러분 주변에 절망에 빠져서 신음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혹은 노인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살아야 하는 이유를 찾지 못해서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근원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모든 회개하는 영혼들에게 참 생명이 되시고, 영원한 삶을 주시는 구세주 이십니다. 주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되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